chapter 1

인문정신은 당당하다 021

- '강신주'라는 고유명사 023
- 김수영과 인문정신 026
- 너나 잘하세요 032
- 인문학적 독서 036
- 인문학과 저항 043
- 철학을 종주하다 046
- 철학에 이르는 길 051
- 철학의 숲에서 김수영의 길로 055
- 경계를 허무는 철학 060
- 철학이 필요한 시간 062
- '현재'라는 텍스트 069
- 평론과 글쓰기 072
- 철학과 영화 078

chapter 2

사랑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083

- 사랑과 기다림 085
- 사랑과 자유 089
- 잃어버린 열쇠 095
- 인간은 사랑의 존재 100

- 사랑하려면 신을 죽여라 104
- 이별을 각오하고 사랑하라 116
- 사랑은 '아까징끼' 120
- 어른이 된다는 것 123
- 혁명의 조건 128

chapter 3
철학적 시 읽기와 김수영 133

- 〈김일성만세〉라는 사금석 135
- 김수영의 정신, 인문학의 정신 143
- 스스로 도는 팽이 150
- 불온시 논쟁 159
- 김수영과 아버지, 박인환과 김춘수 162
- 절정에 서서 버티기 173
- 사랑과 폭력 177
- 긍지의 날 181
- 시와 철학 184
- 시인들 190
- 문학과 에로티시즘 197
- 시의 힘 207
- 보편적 공감의 구조 212
- 강신주를 위하여 216
- 강신주다운 글쓰기 220
- 시인과 철학자 224

chapter 4
제자백가를 통하라 229

- 혁명가와 시인 231
- 움직이면 산이 아니다 233

- 동양의 정치철학과 '역린' 240
-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 245

chapter 5
유가를 넘어서 255

- 유학의 패권 257
- 공자와 진시황 264
- 묵자와 양주 272
- 제자백가와 담론 지평의 확장 277
- 중국 담론과 위계 사회 280
- 사마천과 공자 285
- 공자와 예법 294
- 공자의 인간적 면모 303
- 고전 독법과 대안 교육 307

chapter 6
길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 321

- 관중, 순자, 여불위 323
- 중국철학 최초의 악플러, 맹자 328
- 공자의 모순 331
- 도는 걸어야 만들어진다 339
- 덕의 정치 342
- 포숙, 관중을 부리다 351
- 노자와 장자에 대한 오해 357
- 유교 자본주의와 조폭 문화 361

chapter 7
철학, 한국 사회를 보다 369

- 정치, 인간과 노예 사이 371

- 마르크스에게 욕먹는 마이클 샌델 375
- 오감의 세계 vs 시각의 세계 379
- 신상 털기와 인민재판 386
- 다른 옷 입기, 같은 옷 입기 391
- 스티브 잡스와 이건희 393
- 망령의 귀환 402
- 신은 죽었다, 카르페 디엠 407
- 예수, 작두를 타다 411
- 스피노자와 동학 416
- 자본의 한계를 돌파하는 사랑 421
- 노무현과 진보의 증발 426
- 억압과 야만의 시대 434
- 사랑과 혁명이 필요한 시간 439

chapter 8
자본주의에 맞서라 445

- 소유냐 사랑이냐 447
- 장기 기증인가 매매인가 454
-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된다 458
- 하이퍼리얼리티 462
- 대중매체와 스펙터클 465
- 시각의 세계, 자본의 세계 473
- 민주주의는 데모의 정치 478
- 민주주의의 양 떼가 되다 482
- 자살에 이르는 길, 자기계발 484

chapter 9
음악이 필요한 시간 491

- 편집자는 첫 독자 493

- 언어 이전의 고통과 대중적 글쓰기 495
- 자본과 책 사이의 인문학 출판 502
- 블로그와 책 507
- 내가 챙긴다 510
- 거리 두기 518
- 음악과 정신성 523
- 음악, 바벨탑 이전의 언어 531
- 피아노 소나타와 리듬 534
- 감정 수업 540
- 유리병 편지 547
- 고통의 폭과 《에밀》 550
- 글쓰기의 동력 556

chapter 10
인간을 위하여 563

- 내가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565
- 페르소나와 결혼 573
- 가면을 벗고 어린아이가 돼라 584
- 그리고 사랑과 자유 588

에필로그
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다웠다 – 강신주 593

• **인용 작품 출처** 600